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연관성

손지량 · 이은비 · 장종화
한서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through clinical exper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i-Lyang Son · Eun-Bi Lee · Jong-Hwa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ong-Hwa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41-660-1574, Fax :+82-660-1579, E-mail: jhjang@hanseo.ac.kr
Received: 29 July 2016; Revised: 7 October 2016; Accepted: 9 October 2016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and relationship of incivility through clinical exper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57 dental hygiene students in six universities from November 1 to December 1, 2015. The questionnaire by five point Likert scal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6 items), incivility (20 items), and major satisfaction (6 items). Incivility was divided into three factors of staff, doctors, and patients & visitor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multiple response cross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The mean of incivility and major satisfaction was 2.23 and 3.29, respectively. The incivility of staff, doctors, and patients & visitor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incivility through clinical experience is associated with major satisfaction nega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to develop remedy such as positive attitude dealing with incivility and implementing similar environment education during clinical training at school and dealing with stress.

Key Words: clinical experience, dental hygiene student, incivility, major satisfaction,

색인: 무례함, 임상실습 경험, 전공만족도, 치위생(학)과 학생

서론

치위생학은 구강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행동관 리와 예방적 구강보건요리를 제공하는 기술과 과학으로[1],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하다 [2].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이론 강의와 교내실습, 임상실습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배운 치위생 이론과 실습을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무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임상실습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학 생이 습득한 이론교육과 기술 및 태도를 적용하는 교육이 며, 치위생(학)과 학생의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 고와 분석적 기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갈등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역량을 기르게 되 고, 궁극적으로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Copyright©2016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신감을 증가시킨다[2,3].

한편,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음의 관련성이 있고[2], 대인관계에서 무례함을 겪게 될 시 의욕이 상실된다고 보고하고 있다[4].

무례의 사전적 정의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나타낸다. Andersson과 Pearson[5]은 근무지에서 직원들이 경험하는 무례함이란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근무지의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 행동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근무지에서 직원들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상사와 동료를 포함한 모든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과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키고[6],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직무 조절 능력을 저하시킨다[4].

이와 같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전공만족을 낮추게 되어 장차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수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실습현장이 완전히 통제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임상실습에 회의를 느끼고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임상실습 경험으로 심리적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고[7,8], 임상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9]. 나아가 임상실습은 진로에 대해 실전에서 경험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떨어지면 전공만족도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공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10],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매우 연관성이 크다고 하였고[11], 관련 선행연구로는 가치관[12], 자아탄력감과 자기효능감[13], 전문직관[14] 등 개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과병·의원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무례함과 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조사하고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을 모색하는 교육과정 개

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무례함 경험과 전공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성 횡단면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6개 대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별 6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20, 검정력 0.95 수준으로 산출하여 314명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 P01-201511-22-004).

3. 연구도구

연구도구인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과 무례함 20문항, 전공만족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무례함은 20문항으로 Nursing Incivility Scale(NIS)[15,16]의 도구를 번안하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동료의 무례함’ 5문항, ‘의사의 무례함’ 6문항, ‘환자 및 환자가족의 무례함’ 9문항을 이용하였다. 측정기준은 리커트 5점 척도인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0.933$ 이었다.

전공만족도는 Diener 등[17]이 개발한 전공만족도 척도(Academic Major Satisfaction; AMSS) 20문항을 Nauta[18]가 수정한 것을 장[19]이 번안한 질문지 6문항 이용하였다. 측정기준은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조사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할 결과 Cronbach's $\alpha=0.819$ 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구목적과 설문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와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360명에게 수집된 자료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357부(99%)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전공만족도는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과정 중 무례함,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다중응답 교차분석, Independent t-test 및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과정에서 겪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구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정하였다.

연구결과

1. 무례함과 전공만족 정도

전체적인 무례함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평균 2.2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개의 하위요인에서 의사의 무례함이 2.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료의 무례함(2.28점),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2.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평균 3.29점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Table 2>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무례함에서는 연령이 20세 미만(2.10점)이 가장 낮았으며, 23세 이상은 2.47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례함이 높아졌다($p=0.039$). 동료의 무례함은 조사 대상자의 주거형태가 집에서 다니는 경우 2.29점으로 자취생(2.14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3$). 의사의 무례함에서는 연령에서 23세 이상이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연령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6$).

3. 임상실습지와 무례함의 관련성

<Table 3>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와 무례함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중응답 교차분석결과이다. 무례함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가 없었고, 무례함을 '보통이다'로 느낀다는 응답은 10.4%, '그렇다'는 0.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례함과 실습지별 무례함을 느끼는 정도가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는 종합병원(14.1%), 치과의원(12.2%), 보건소(11.6%), 치과대학병원(10.1%), 치과병원(8.9%) 순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이유 중에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3.63점)'로 응답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다른 모든 이유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특히, '성적에 맞추어서(3.12점)' 학과를 선택한 응답자의 전공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Table 4>.

5. 임상실습지와 전공만족도의 관련성

<Table 5>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와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다중응답 교차분석결과이며, 전공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재코딩하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그렇다'로 재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공만족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59.9%), 치과병원(57.7%), 치과의원(57.6%), 치과대학병원(54.2%), 종합병원(5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 무례함 정도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교

<Table 6>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겪은 무례함의 전체 평균 2.23점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한 뒤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무례함 정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무례함을 높게 겪은 그룹이 3.19점으로 낮은 그룹 3.45점에 비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1. Incivility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Characteristics	N	Min	Max	Mean±SD	Cronbach's α
Incivility	357	1.00	4.80	2.23±0.64	0.933
Incivility of staff	357	1.00	5.00	2.28±0.74	0.817
Incivility of doctors	357	1.00	4.50	2.30±0.80	0.870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357	1.00	5.00	2.14±0.72	0.921
Major satisfaction	357	1.33	5.00	3.29±0.63	0.819

Table 2. Inciv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All		p-value*	Staffs		p-value*	Doctors		p-value*	Patients		p-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20	70	2.10	0.56 ^a	0.039	2.14	0.63	0.076	2.17	0.71 ^a	0.016	2.03	0.68	0.225
≥20 ~ <23	262	2.24	0.66 ^{ab}		2.29	0.76		2.30	0.81 ^a		2.16	0.73	
≥23	25	2.47	0.61 ^b		2.51	0.77		2.70	0.72 ^b		2.29	0.70	
Gender													
Female	354	2.23	0.64	0.130	2.28	0.74	0.151	2.31	0.79	0.164	2.15	0.72	0.251
Male	3	1.67	0.78		1.67	0.58		1.67	1.01		1.67	0.87	
Grade													
Sophomore	30	2.14	0.53	0.702	2.29	0.74	0.876	2.28	0.76	0.346	2.04	0.55	0.732
Junior	225	2.23	0.67		2.29	0.74		2.30	0.79		2.15	0.77	
Senior	102	2.25	0.60		2.24	0.76		2.38	0.91		2.16	0.66	
Residential type													
Home	176	2.19	0.62	0.177	2.29	0.71 ^a	0.003	2.37	0.51	0.708	2.07	0.70	0.166
Live alone	125	2.21	0.60		2.14	0.72 ^b		3.00	0.32		2.19	0.68	
etc.	56	2.37	0.78		2.55	0.82 ^c		2.21	0.64		2.26	0.87	
Major choice motivation													
For school record	45	2.36	0.78	0.352	2.30	0.88	0.989	2.44	0.86	0.281	2.34	0.91	0.155
Advice from parents or teacher	81	2.26	0.59		2.29	0.71		2.40	0.78		2.14	0.69	
For employment	173	2.18	0.63		2.26	0.74		2.24	0.78		2.10	0.69	
For aptitude	36	2.29	0.63		2.29	0.71		2.36	0.85		2.25	0.70	
etc.	22	2.09	0.58		2.34	0.63		2.12	0.74		1.94	0.68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alpha=0.05$ ^{a,b}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lpha=0.05$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organization and incivility*

Unit: N(%)

Variables	Incivili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Medium	Agr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75(31.5)	138(58.0)	24(10.1)	1(0.4)
General hospital	23(32.4)	38(53.5)	10(14.1)	-
Dental hospital	43(35.0)	68(55.3)	11(8.9)	1(0.8)
Dental clinic	65(28.4)	135(59.0)	28(12.2)	1(0.4)
Public health centers	42(28.6)	87(59.2)	17(11.6)	1(0.7)
Total	116(32.5)	202(56.6)	37(10.4)	2(0.5)

*by the multiple response crosstabulations analysis

Table 4.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Major satisfaction	p-value*
			Mean±SD	
Age	<20	70	3.24±0.56	0.719
	≥20 ~ <23	262	3.30±0.65	
	≥23	25	3.35±0.65	
Gender	Female	354	3.29±0.63	0.975
	Male	3	3.28±0.51	
Grade	Sophomore	30	3.37±0.66	0.173
	Junior	225	3.32±0.61	
	Senior	102	3.19±0.66	
Residential type	Home	176	3.27±0.59	0.464
	Live alone	125	3.28±0.68	
	etc.	56	3.38±0.62	
Major choice motivation	For school record	45	3.12±0.46 ^a	0.001
	Advice from parents or teacher	81	3.19±0.64 ^a	
	For employment	173	3.33±0.63 ^a	
	For aptitude	36	3.63±0.57 ^b	
	etc.	22	3.15±0.75 ^a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organization and major satisfaction*

Unit: N(%)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Disagree	Medium	Agr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69(29.0)	129(54.2)	40(16.8)
General hospital	25(35.2)	37(52.1)	9(12.7)
Dental hospital	27(23.6)	71(57.7)	23(18.7)
Dental clinic	56(24.4)	132(57.6)	41(17.9)
Public health centers	35(23.8)	88(59.9)	24(16.3)
Total	94(26.3)	202(56.6)	60(17.1)

*by the multiple response crosstabulations analysis

7.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

<Table 7>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무례함과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무례함에 대한 인지가 클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았다($r=-0.194$). 전공만족도와 무례함의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에서는 의사의

무례함($r=-0.196$)을 크게 느낄수록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직원의 무례함($r=-0.190$),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r=-0.131$) 순으로 무례함을 크게 느낄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의 하위요인 간은 상호 양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Major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ean of the incivility

Characteristics	N	Major satisfaction		t	p-value*
		Mean±SD			
Low Incivility group(<2.23)	131	3.45±0.66		3.729	0.001
High Incivility group(≥2.23)	226	3.19±0.59			

*by the independent t-test at $\alpha=0.05$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major satisfaction

	Incivility	Incivility sub-factors			Major satisfaction
		Staff	Doctors	Patients	
Incivility	1				
Incivility of staff	0.786**	1			
Incivility of doctors	0.863**	0.610**	1		
Incivility of patients and visitors	0.892**	0.534**	0.621**	1	
Major satisfaction	-0.194**	-0.190**	-0.196**	-0.131**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보건의료직종으로서 장차 치과위생사로서 종사하게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전체적인 무례함은 5점 만점에서 2.23점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무례함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았다. 무례함의 하위 요인 중에서 의사의 무례함이 2.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료의 무례함은 2.28점,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 2.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동료의 무례함 정도에 비해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이 낮은 이유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는 3.29점으로 나타나 정 등[20]이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무례함은 23세 이상이 2.47점으로 가장 높았고, 20세 미만은 2.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유 등[21]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서 역할요인과 대인관계요인이 23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20세 이하가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거형태별 동료의 무례함은 자취하는 학생이 2.14점으로 통학하는 학생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자취 학생이 가장 낮고 친척집, 하숙 등을 하는 학생이 가장 높았다는 황[8]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취하는 학생들은 실습을 마치고 귀가 후 심리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의 전공만족도가 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에 맞추어서'는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김 등[12]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적성고려'인 경우 3.64점으로 가장 높고, '성적에 따라'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전공 선택에 있어 본인의 의지가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적인 무례함과 각 하위 요인들은 양의 관련성이 있었고, 전공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례함과 유사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황[8]은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가 음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남 등[22]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하였으며, 김 등[23]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치위생(학)과나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정량적인 통계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무례함을 경험한 사례에 대한 주관적 문항에서 다각적인 응답 결과를 나타난 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동료들에게서 겪은 무례함으로 '치과 보조 업무 이외에 잔심부름을 시키기', '실수하면 엄청 신경질적으로 행동을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실습생이 한 것으로 탓한 것', '막말', '트집잡기', '환자 앞에서 민망함 주기', '기구를 치우는 사람이라는 듯이 취급할 때', '다른 학교 친구와 편애', '간호조무사가 야라고 부르다가 개인적 심부름을 시킬 때는 친절하게 대함' 등이 있었다.

의사의 무례함은 '기구나 재료를 던진다(피 묻은 거즈

등), ‘없는 사람 취급한다’, ‘어시스트를 시켜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간주하여 기회조차 주지 않음’, ‘감염환자에 대해 치료 전 말해주지 않음’, ‘누가 들어도 무례한 농담’, ‘커피 타라고 시킴’, ‘미스 김이라고 부름’, ‘진료실에서 퇴장시킴’ 등이 있었다.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언니, 저기요, 아가씨 등의 호칭이 불쾌했다’, ‘컴플레인을 걸었다’, ‘실습생이라고 옆에 서있지 말라고 함’ 등이 있었다. 이것은 형 등[2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의 8개 군집 중 ‘의료인, 환자 태도’, ‘동료학생 간 비교’, ‘이론과 실무의 차이’, ‘실습환경 문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위생(학)과 학생과 간호학생은 실습지가 유사한 환경인지라 임상실습과정에서 무례함과 스트레스 경험이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과정에서 동료, 의사, 환자와 환자가족에게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과정에서 겪는 무례함을 줄이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에 시행되는 교내 실습실을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내 및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길러야 할 것이다[25]. 즉, 무례함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무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과 의료관리에서 중요한 전문 인력이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도구를 외국문헌의 설문문항을 번안하여 조사하였기에 문항 내용을 공감하고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한국형 무례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습지에서 발생하는 무례함에 대한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증재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치과계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5년도 한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동료의 무례함, 의사의 무례함,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체적인 무례함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2.2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의사의 무례함(2.30점), 동료의 무례함(2.28점),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2.1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29점이었다.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무례함을 ‘보통이다’ 이상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10.9%이었고, 실습지별로는 종합병원(14.1%), 치과의원(12.6%), 보건소(12.3%), 치과대학병원(10.5%), 치과병원(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습지별 전공만족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보건소(59.9%), 치과병원(57.7%), 치과의원(57.6%), 치과대학병원(54.2%), 종합병원(52.1%) 순으로 나타났다.
3.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겪는 무례함이 높은 그룹의 전공만족도는 3.19점으로 낮은 그룹 3.45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전공만족도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94$). 무례함의 하위요인별 전공만족도는 의사의 무례함이 클수록($r=-0.196$), 동료의 무례함이 클수록 ($r=-0.190$),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이 클수록($r=-0.1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상실습과정에서 무례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례조사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임상실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References

1. Kim EK, Kim YJ, Kim JH et al. Dental hygiene standard education and development. Seoul: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 · Korean Development Dental Hygiene Professional Association, 2005.
2. Shim HS, Lee HN.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2): 139-45.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39>.

3.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 17(3): 337-45.
4. Kim SY, Park KO, Kim JK.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in general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2013; 43(4): 453-67. <http://dx.doi.org/10.4040/jkan.2013.43.4.453>.
5. Andersson LM, Pearson CM.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 Manage Review* 1999; 24(3): 452-71.
6. Cortina LM, Magley VJ, Williams JH, Langhout RD. Incivility in the workplace: Incidence and impact. *J Occup Health Psychol* 2001; 6(1): 64-80.
7. Chang BJ, Song KH.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al Hyg Sci* 2005; 11(1): 81-90.
8. Hwang SH.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of dental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Dankook, 2004.
9. Hong SM, Han JH, Kim HK, Ahn YS.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al Hyg Sci* 2009; 9(2): 219-24.
10. Kim SG, Koo YK, Jeong M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Contents Assoc* 2012; 12(8): 248-55.
11. Jeong MK, Lee JY.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6): 1241-9.
12. Kim MN, Heo YM, Kim HJ, Ahn YS.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1): 81-9.
13. Choi MS, Jang YH, Yun HK.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2): 155-62.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55>.
14. Kim SG, Koo YK, Jeong M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Contents Assoc* 2012; 12(8): 248-55.
15. Guidroz AM, Bumfield-Geimer JL, Clark O, Schwetschenau HM, Jex SM. The nursing incivilit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occupation-specific measure. *J Nur Measurement* 2010; 18(3): 176-200.
16. Gopalkrishnan P. Workplace incivility and employee strain reaction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insecurity[Master's thesis]. Bowling Green, OH: Univ. of Bowling Green State, 2011.
17. Diener E, Emmons RA, Larson R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 Personality Assessment* 1985; 49: 71-5.
18. Nauta R. People make the place: religious leadership and the identity of the local congregation. *Pastoral Psychol* 2007; 56(1): 45-52.
19. Jang SL. The relationship of social desir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The path analysis of mediated variables through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atholic, 2013.
20. Jung GO, Choi GY, Bae JY.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61-8.
21.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6; 16(1): 62-9. <http://dx.doi.org/10.17135/jdhs.2016.16.1.62>.
22. Nam YO, Jang JH, Kim SS. According to the clinical training, the study of stresses and coping ways of stresses.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02; 2(2): 145-56.
23. Kim EY, Yang SH.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5; 21(4): 417-25.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17>.
24. Hyoung HK, Ju YS, Im SI.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Adm* 2014; 20(4): 394-404.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4.394>.
25. Jang MH, Kim JH.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3): 407-15.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3.407>.